

# “살기 좋은 행복나주 만들겠다”

## 윤병태 나주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시작’ 다짐  
‘성과·참여·소신행정’ 실현 강조  
현충탑·정렬사 참배 첫 일정 시작



나주시는 지난 1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나주의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민선 8기 윤병태 나주시장 취임식을 가졌다. /나주시 제공

“저 윤병태는 시민을 위한 ‘성과행정’, 시민에 의한 ‘참여행정’, 시민을 향한 ‘소신행정’으로 살기 좋은 행복나주 으뜸 나주를 만들 것임을 약속합니다.”

지난 1일 민선 8기 나주시장으로 취임한 윤병태 시장은 “새로운 영상강 시대, 새로운 나주의 시작, 세계적인 에너지국제도시 건설이라는 대단한 대장정의 길에 시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해 주길 바란다”며 힘찬 각오를 밝혔다.

나주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나주의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민선 8기 윤병태 나주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취임식장에는 시민과 출향 향우, 전·현직 정치인, 기관·사회단체장, 온라인 신청을 통한 참석 희망자 등 1,000여명이 자리해 새로운 나주를 향한 민선 8기 윤병태 호의 첫 행해를 축하했다. 취임식에 앞서 윤 시장은 오전 8시 부시장, 간부공무원들과 현충탑, 정렬사를 참배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윤병태 시장은 “지난 6월 1일 나주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열망으로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

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나주 현안을 시급히 해결하고 새로운 나주를 만들어주라는 준엄한 명령에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윤 시장은 이어 민선 8기 시장 목표로 천년고도 역사와 문화가 꽃피고 아름다운 경관이 사랑받는 ‘융성하는 문화관광’, 농축산업이 대접받고 농촌마을이 활기를 찾는 ‘존중받는 농업농촌’, 대한민국 에너지신산업을 선도하고 골목상권에 온기가 있는 ‘미래선도 활력경제’를 제안했다.

또 최고의 교육 여건을 갖추고 복지공동체를 지향하는 ‘명품교육 맞춤형지’, 시민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시민중심 혁신행정’ 실현을 약속했다.

윤 시장은 “성과중심의 행정으로 일 잘하는

시청, 시민이 시청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참여행정, 나주 공동체의 희망찬 미래를 여는 소신행정을 펼치겠다”며 “시민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소중히 하여 통합되고 하나된 나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자들에게는 적극행정, 문제해결형 행정을 당부하는 한편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직의 자부심과 보람을 약속했다.

윤 시장은 “현장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의 요구가 공익에 부합, 타당하다면 규정과 절차를 바꿔 처리하는 적극행정에 임하겠다”며 “제가 저야할 책임을 마다하지 않고 실력을 키우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공정한 기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함평군이 최근 함평읍 주포항 일대에서 우량 감성돔 치어를 방류하고 있는 모습. /함평군 제공

## 함평, 감성돔 치어 22만 마리 방류

함평군이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함평만 연안 해역에 전염병 검사를 마친 건강한 감성돔 치어

22만 마리를 방류했다.

함평읍 주포항 일대에서 실시된 이번 방류작업에는 군 관계자, 주포어촌계, 수산업경영인회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함평만은 청정해역으로 감성돔 등 다양한 어족자원의 산란과 서식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감성돔은 연안 정착성 어종으로 방류 때 생존율이 높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희감으로 각광받고 있어 지역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평=윤예중 기자

## 화순 서성리 양계단지 치유공간으로 탈바꿈

### 2026년까지 250억 투입 정비

악취와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로 몸살을 앓던 화순군 동면 서성리 양계단지가 치유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화순군은 서성리 양계단지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촌공간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오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서성리 일대 양계 축사와 폐업 농가를 철거하고 농촌 공간 재생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치유푸드뱅크, 힐링스테이션, 힐링커뮤니티센터, 치유연구센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주거단지 등 대규모 생활SOC·치유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축사 등 유휴시설을 철거하고 지역이 수렴한 공간정비 계획에 따른 농촌환경과 경관을 개선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화순=이종백 기자

## 영광 친환경 고추재배 애로사항 원스톱 해결

영광군과 농촌진흥청이 최근 친환경고추 재배농가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찾아가는 영농컨설팅은 농촌진흥청 고추지원담당관실과 협력으로 진행됐으며, 친환경 고추 주산단지에서 연작장애 및 병충해 방제 등 반복제기 되는 영농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해 맞춤형 현장교육으로 농가호응이 매우 컸다.

이번 교육은 핵심 재배기술, 병해충, 토양, 농

약안전사용 등 분야별 농업 전문가들이 친환경 고추 재배현장을 찾아 영농 애로기술을 적극적으로 해결했으며, 작목반 농가 포장을 방문해 진단 및 대책을 제시하는 교육도 병행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작목별 영농현장 컨설팅 참여를 통해 친환경 고추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었다”며 “이와 연계해 맞춤형 기술교육도 단계별로 추진, 전국 최고품질 친환경 고추 생산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곽용순 기자



길쌈복을 입은 교육생들이 목화벽화 앞에서 기념촬영하는 모습. /화순군 제공

## 화순 내평 길쌈놀이 보존회, 목화 체험교육

화순군 화순읍 내평리 길쌈놀이 보존회(회장 서말삼)가 태극미술관에서 목화 체험교육을 진행했다.

3일 화순군에 따르면 길쌈놀이 보존회가 최근 능주향교 교육생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험교육을 했다.

교육생들은 길쌈 동영상을 감상하고 길쌈 유래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물레 체험, 목화를 활용한 공예 실습, 길쌈복 입기, 도청샘 우물 복원터 체험, 내평마을 목화 벽화배

경 사진 찍기 등 이색 체험도 즐겼다.

한 교육생은 “어릴 적 길쌈을 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며 “목화를 활용한 장식품 체험과 추억에 남는 사진도 찍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순군 관계자는 “내평 길쌈놀이는 화순군 향토문화유산으로 보존 개발 가치가 풍부하다”며 “놀이를 자원으로 다양한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화순=이종백 기자

## 클릭! 고향 속으로



### 장성읍 이대원씨 등 장학금 기탁

(재)장성장학회는 최근 (재)원불교 장성교당, 이대원 씨, MG새마을 금고 장성지점에서 각 100만 원씩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3일 밝혔다.

(재)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장성교당은 대각개교절을 기념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100만 원을 기탁했다. 김기성 교무는 “교도들이 협력해 모금한 금액”이라면서 “어려운 환경 속

에서도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의미 있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군 행정동우회장 이대원 씨는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의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인재 육성을 위한 길”이라며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대원 씨는 (재)장성장학회의 이사를 역임했다. /장성=전일용 기자



### 장흥사회복지관, 이웃사랑 봉사 확대

장흥군과 장흥종합사회복지관(관장 양은희)은 최근 장흥군 부산면에서 제76회 정남진사랑나눔봉사대 활동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정남진사랑나눔봉사대는 생활지원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을 직접 방문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11개 서비스

분야로 축소 운영됐던 것을, 이날 부산면에서는 이·미용봉사, 통합진료서비스 등 16개 서비스 분야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정남진사랑나눔봉사대는 취약계층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맞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장흥=이옥현 기자



### 나주, 순천만서 드림스타트 진로체험

나주시는 최근 순천만 잡월드에서 드림스타트 아동의 진로 탐색 및 직업 체험을 위한 견학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견학은 학생 개인의 진로 탐색을 목표로 다변화하는 직업세계를 체험하고 각자의 미래를 설계해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나의 꿈을 잡(Job)아라’를 주제로 드림스타트 4-6학년 학생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특히 적성에 맞는 체험 존을 개별 선택해 진로 체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견학 체험을 통해 진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체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조충권 기자